

2016년도 인문자연탐사 보고서

-삶, 세종시를 탐구하다-

세종시 학군 배정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탐구

2016. 10. 22

이영우 정월형 정윤상 조하연 천동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세종시 학군 배정 문제점 및 해결방안 탐구

이영우 정원형 정운상 조하연 천동현

1. 탐사의 필요성

가. 학군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 지적 및 해결방안 모색

1) 세종시 학군제 분석 및 불만 최소화 방안 탐구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의 학생으로서 세종시의 학군 배정과는 관련 없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평소에 관심은 없었지만, 사실 교육 분야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주된 관심사가 바로 진학, 학군 배정에 관련된 문제이다.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 혹시 이러한 학군 배정에 관한 불만이 표출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해보던 중 가까운 학교에 배정받지 못해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6차선 도로를 건너서 등교해야한다는 시민들의 불만 섞인 기사를 볼 수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을 해보기로 하였다.

학군제는 학교 간의 격차를 줄이고, 과열된 입시교육을 시정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 바로 지역 내에서 학생들의 편익에 맞는 위치 선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학군을 나누는 기준은 인구수가 중심인데, 초기 예상인구보다 인구가 추가적으로 유입되었을 때 여러 불만 사례들에 근거하여 학군 시스템 내에서 능동적인 해결책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해결책의 부재에 따라 근거리 지역이 아닌 다른 학교로 배정되었을 때의 교통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기존의 오래되었거나 새로 설립된 명문학교를 포함하고 있는 학군과 그렇지 않은 학군간의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어 결국 종래의 경제적, 사회 문화적 취지에 맞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집중 분석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2. 탐사 과정

가. 사례 조사를 위한 학교 방문 및 인터뷰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면, 학교 배정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세종시의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동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방문하며, 현재 학교들의 배정상황을 확인하고, 이 학군 배정 원리에 따른 불만 사례들을 조사한다.

1) ○○초등학교 선생님 인터뷰

Q1. 현재 중학교 및 초등학교의 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A1) 이곳은 교육청이 아닌 일반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자세한 원리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중학교의 경우 거리가 더 가까운 곳(근거리)에 주로 배정되고, 6학년 때 원하는 중학교 지망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지망과 근거리 배정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지망을 토대로 거리를 조절해서 중학교를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도 비슷하게 학교 주변 내 생활권 학생들에게 학교를 배정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8,10 단지가 배정받는다.

Q2. 학교의 배정이 항상 본인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러한 불만사례들을 주위에서 목격한 경험이 있는가?

A) 학교가 근거리를 기준으로 배정된다고 항상 더 가까운 학교에 배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도상에서 직선거리로 보았을 때는 물리적으로 더 가까울 수는 있으나, 교통상황, 실제로 학생들이 등교하는 경로에 따라 오히려 등교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는 대부분 ○○중학교를 희망하지만 **동의 인구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중학교에서 모든 인원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결국 교육청에서 무작위로 몇몇 학생들을 ○○중학교 대신 다른 학교에 배정해 불만이 있던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불만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어떤 학부모는 자신의 중학교 배정 원서에 주소지를 원하는 중학교 근처로 바꾸어 제출해 배정을 위조했다는 소문이 있기도 하였다.

2) ○○중학교 선생님 인터뷰

Q1. 학교 배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의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A1) 이 부근에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지만, 1-▽ 생활권(**동)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배정받는데 불만이 생긴 사례가 있다. **동의 ◇◇초등학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학교를 배정받는다. 하지만 세종 시에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이 생활권에서도 인구가 밀집되자, 1지망을 □□중학교로 작성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히려 △△중학교에 배정받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Q2. 현재 ○○중학교에서 배정 상황 및 문제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A2) ○○중학교의 경우는 주변 인구가 많고, 세종 시에서 학교의 명성 및 품격이 높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는 대부분 ○○중학교를 배정받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에 따라, 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이상의 학생이 배정을 희망하여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몇 명의 학생을 다른 곳으로 배정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먼 지역에서도 우리학교로 자의로 오거나 전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 데 4,5개 정도의 TO를 비워두고 전입생들을 받고 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의 TO가 모두 차, 더 이상 전입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학교 2 건설 계획이 진행 중이다.

나. 교육청 담당 직원 전화 문의

세종시 교육청에서 제공하는(<http://www.sje.go.kr/sub/info.do?m=030301&s=sj>) 학구 안내 페이지에는 초등학교 통학구역이 글로 안내되고 있다. 자연탐사 첫째 날(10/19)에 교육청에 전화로 문의를 하여 이러한 정보를 지도에 나타낸 ‘신설학구배치도’를 받았고, 아래의 그림과 같이 빨간색 점선으로 둘러싸인 구역 안에 정해진 학교에 가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림에서 들었던 몇 가지 의문점들과 이에 대한 답변(서○○ / 세종시교육청 학생배치담당)은 다음과 같다.

Q1. 도시가 세워지기 이전에 계획하고 작성된 이 지도에서 학교 설립 위치는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는가?

A1) 도시가 들어서기 이전 도로망을 정비한 후, 그 지역의 인구수를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하여 예측하고, ‘가상통학구역’을 설정하여 인구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가깝게 학교의 위치를 정한다. 인구수를 예측하는 지표로는 그 주변 아파트들의 층수(1블럭: 18층 이하 아파트, m블럭: 30층 이하 아파트),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이 있다. 이후 공청회를 개최하여 거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 과정을 거친다.

Q2. 초등학교의 배정 기준은 무엇인가? 중학교 배정은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근거리’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이고 ‘지망’과 ‘근거리’중 어떤 기준을 우선시하는가?

A2) 초등학교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통학구역 내에서 다녀야한다. 중학교의 경우 지망을 우선시하여 추첨을 통해 배정된다. 이때 추첨의 순서는 ‘근거리’개념을 통해 정해지

는데, 이는 학교까지의 거리를 다른 가구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집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하여 같은 순서들끼리 추첨을 한다. 이는 절대적인 거리를 기준으로 하지 않아 모든 가구에 공평성을 부여할 수 있다.

Q3. 인구의 밀집에 따라 추첨을 통해 배정받을 확률이 낮아졌는데, 현재까지 나온 불만 사례(본 탐사에서 처음에 제시한 사례 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강구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

A3) 사실이다. 도시 계획 단계에서 예측했던 인구수보다 더 많은 인구가 밀집되는 상황이 ○○중, △△중 등 몇몇 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먼저 개교한 학교일수록 학교가 빠르게 안정화되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이다. 사실 기존의 ‘근거리’를 기준으로 한 추첨에서 탈락된 학생들은 제 2근거리, 제 3근거리 까지 배정이 되긴 했지만 2015년 기준 제 3근거리에 배정된 학생 수는 세종시 전체에서 14명 정도에 그쳤다. 이러한 소수 인원들의 민원제기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상황에 맞추어 스쿨버스를 지원해 주는 등, 불만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인구수 과밀현상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멀리 떨어진 학교나 신설학교들에게 교육적, 물질적 측면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도로 상황을 개선하여 등, 하굣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또, 도농공동학구를 설정하여 세종시 내에 동(洞)지역학생들에게 면(面)지역 학교로의 자유로운 전입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실제 실행되고 있으며 이는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들의 통, 폐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탐구 결과

가. 사례 조사를 위한 학교 방문 및 인터뷰

- 1) 학교를 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근거리 배정의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중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작성하는 지망과도 연관을 지어서 학교 배정을 결정한다.
- 2) 학군 시스템에 있어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인구의 밀집이다. ○○중학교의 사례를 보면 인구가 한 곳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임의로 학생들을 다른 중학교로 배정을 시키는 상황을 볼 수 있다. 또한 1-△생활권에서도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중학교에서도 점차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몇몇 학생들이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지나치게 물리적인 근거리 배정과 교육청의 임의 배정도 주민들에게 불만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교육청 담당 직원 전화 문의

- 1) 학교를 설립하는 위치는 도시가 들어서기 전 도로망을 정비하고 ‘가상통학구역’을 설정하여 예상하는 인구를 고려하여 학교의 설립 위치를 결정한다.
- 2) 보통 초등/중학교는 근거리 배정과 지망을 고려하여 추첨을 통해 배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추첨을 통한 배정이 인구 밀집에 의해서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신설학교에 더 많은 지원을 통해 인구를 분산시키거나 도농공동학구를 설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다.

4. 결론 및 제언

세종시 초등, 중학교의 학부모들의 인터뷰 또한 진행하였는데, 학군 배정과 관련된 의견의 주 내용은 결국 인구의 밀집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여러 부수적인 일들이었다. 위의 선생님과 교육청 직원의 답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부모들이 가지는 대부분의 불만은 집에서 가까운 학교이면서 더 안정화되고 규모가 큰 학교를 선호하지만 학생 수가 몰려 탈락을 하는 경우에서 발생되었다. 이렇듯 학군제의 초기 목적과 상반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와 그 해결방안을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짚어 보았다.

- 1) 경제적 영역경제수준의 차이는 학부모들의 선호도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수준은 개인의 소득 차이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지역의 인구수, 발전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학교의 경우 규모에 적합한 지원금을 받기에 지역에 따라 특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하지 못할 경우에 소위 말하는 학교의 ‘이미지’가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학부모들이 그 ‘이미지’를 따라갈 경우 학생 밀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는 실제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추가적인 지원 등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청에서 매년 학교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학교마다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장점은 무엇인지, 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여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고,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이나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고, 의도적인 전입 때문에 발생하는 인구 밀집 현상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 2) 사회, 문화적 영역위에서 언급한 인구 이동은 그들이 의도를 가지고 이동했을 때를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지역에 아파트나 주택이 많아 인구가 초기부터 밀집되어있을 때, 그곳에 추가적인 인구 유입이 조금이라도 발생할 경우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 경우는 1)과 반대로 그들이 의도를 가지고 ‘분산’되도록 해야 하며, 현재 교육청에서 시행되는 신설학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정책이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하지만 무분별한 인구 분산 시도는 교육청에 대한 불신만 키우게 되므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입의 자유를 주면서 어떤 학교로 전입을 할 경우 어떠한 혜택을 받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한다. 도농공동학구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된 정책이

지만, 실질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학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추가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다른 학교들과 차별화된 특색 있는 교육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또,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 정비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거리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 지역 간의 이동이 활발하고 지역마다 색깔이 분명할 때, 균형 잡힌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5. 활동 후기

정원형: 세종시에서 자라지 않았기에 탐사를 시작하기 이전에는 사실 학군 배정에 관하여 별 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주제 선정 과정에서 교육청 사이트나 여러 신문 기사를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의 주된 관심사가 바로 학구 배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살아온 서울 지역에서도 학부모들의 편향적인 선호도가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더욱 관심이 갔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비록 문제 자체가 인구 분포 및 지역 간 불균등 발전 양상에 기초를 두고 있어 우리 수준에서 제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책은 없었지만, 현재 인구 분산을 위해 교육청 및 시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의 한계를 짚어보고,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제안해보면서 더욱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러한 사회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얻을 수 있었고, 후배들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뜻깊은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우리의 2박 3일간의 탐사가 세종시의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이영우: 탐사 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아람초등학교와 아람중학교의 사례밖에 조사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의 2박 3일간의 인문자연탐사 활동이 세종시의 초중등 학생들에게 작게나마 실질적인 도움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우리의 탐사 활동은 여기까지만 교육청에서 다른 지역의 실질적인 문제도 조사해 주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3일간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고 세종시에 뭔가 티끌만큼이나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기쁘다.

정윤상: 비록 3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본 탐사를 하면서 세종시 학교에 방문하여 인터뷰하고 직접 걸어 다니면서 세종시에 대해 많이 알 수 있어서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우리가 정한 주제를 제대로 탐구하려면 좀 더 많은 시간과 많은 자원이 필요한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심화해서 탐구해보고 싶다.

조하연: 세종시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기숙사 생활을 한 지라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세종시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있지는 못했었다. 하지만 인문자연탐사를 통해 세종시 곳곳을 직접 돌아다니며 세종시를 더 잘 알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 학군 문제에 대해 조사하며, 교직원분들과 인터뷰를 하며 직접 정보를 수집하면서 전에 해보지 못한 의미 있는 경험을 했다. 또한 세

종시에서는 교육 문제만큼은 정말 세종시에서 열심히 힘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천동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외국 생활을 하다가 막 들어온지라 학군 배정에 대한 경험이 존재하지 않고 어떠한 원리를 통해 학교 배정이 이루어지는지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탐사를 위해 사전조사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학군 배정’에 있어 불만을 가지고 있고, 애매한 기준으로 인해 사람 및 교육기관간의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 인문자연탐사를 진행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및 교육청에 여러 질문을 하며 이러한 학군배정의 원리, 문제점들을 알아볼 수 있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생각해보며 세종시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외에도, 세종시를 탐사함으로써, 잘 알지 못했던 세종시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물론, 학교에 찾아가서 허가를 받아 인터뷰를 하는 것과 교육청에 연락을 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으나, 나에게는 뜻깊은 하나의 경험으로 남을 것 같다.

6. 참고 문헌

- ▶ [네이버 지식백과] 학군 [學群] (두산백과)